

이라는 거야. 감독은 일부러 화낼 줄도 알고 따뜻하게 품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, 본인은 따뜻한 건 가능해도 화내는 걸 못하겠더라. 그래서 자신의 길이 감독은 아니라고 확신했대. 그런 연출은 못한다는 얘기잖아. 이 말은 온화해 보이다가도 엄할 땐 진짜 무섭게 행동해야 하는 감독 페르소나 연출이 안 된다는 얘기야. 자신에 대한 판단을 잘하고 있어. 참 현명하지.

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뭘까?

페르소나를 관리하는 이유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거야. 기업도 다르지 않아. 인간처럼 느끼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려는 모습을 더욱 용이하게 연출할 수 있어.